

2015년 가을학기 히브리서 강해

##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말씀 : 히브리서 1 : 1~14

요절 : 히브리서 1 :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 쓴 서신입니다. 교회를 보면 신약시대 교회들 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 규례와 법도는 폐하여 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인들은 복음을 영접치 않음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역사에서 영원히 버림받아 이제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말씀들은 신약시대의 교회들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또, 구약의 율법과 계명은 폐하여진 법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였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신자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유대교의 전통을 부정하며,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동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신자들 중 상당수가 핍박을 이기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 쓴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믿음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망라된 믿음의 장입니다. 이번 가을학기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구약과 신약의 견고한 연계성을 배우고, 특별히 믿음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같이 1,2a절을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

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1,2a)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신18:15)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 곧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명을 떠났습니다. 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하박국, 요엘, 말라기 선지자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버리고 불순종하던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메시지는 한결같이 동일하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악 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온전케 하심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은 네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 첫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2,3a)

다 같이 2,3a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

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2,3a)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좁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막 12:1~9)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능멸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보내셨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 던졌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유대교의 전통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성전을 멸시하며, 유대교의 교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와 유대인들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개신교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정죄한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율법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

하는 종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였으며 자신들은 더욱 마음 문을 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7:16,17)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요12:49,50)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요14:24)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요17:8)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엘리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이 변할지라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서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또 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십니다. 이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요 온 우주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성품을 지니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청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눅4:43)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눅2:21)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심으로 예수님의 율법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복음”이며 “하나님의 도”,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 둘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3b~5)

다같이 3b~5절을 읽겠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3b~5)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2편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2:7) 하나님은 다윗이 노래한 시편에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무엇을 말씀하심인지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시2:7)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시

55:3)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시16:10)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행13:33~38)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여행 중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다윗의 시편 2편, 55편, 16편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죄 사함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본문 3b절을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3b)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한 죄 사함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불행과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셨을 때 우리를 괴롭히던 죄의 멍애는 사라지고 우리 영혼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죄 아래 있을 때 흑암의 권세가 다스립니다.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죄 아래 있을 때 사단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 아래 있을 때 인간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는 인생들을 불행하게 하는 원수입니다. 죄는 평화를 깨뜨리고, 자유를 박탈합니다. 죄는 절망과 방황을 가져다줍니다. 그런데, 이 죄의 세력에서 인생들을 건져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담 이후 인류역사에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 가운데 태어났다가 죄 가운데 죽는 운명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사1:18),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53:5)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셋째,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6~8)

다 같이 6~8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6~8) 여기서 보면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천사들의 찬송과 경배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하심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만유의 주로서 예수님이 영원한 권세와 통치자로서 오시는 재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재림을 말하면서 시편 97편,104편,45편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시편에 예언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여러번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그 때를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일곱인과 일곱나팔, 짐승재앙

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나타날 징조와 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온 우주적인 대재앙과 전쟁, 재난과 환난이 있는데 이것을 천사들이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크고 무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이 시작되기 전이라 천사들이 아직은 활동하지 않고 있지만, 천사들이 활동을 개시하면서 일곱 나팔을 불게 되면 대환난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쫓대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에 쫓대를 두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서한국과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써 경건한 삶,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신앙,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롯의 아내나 노아시대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장차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복음은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한 마디로 재림신앙과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한 삶과 자기 뜻, 자기욕심을 따른 삶에 임하는 각각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말씀하심으로 천국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천국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는 적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셨고, 좋은 땅과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있음

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비유의 말씀에서 각자가 장사한 것을 회계 곧 주인과 정산 할 때가 오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이 약속하시는 가장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 넷째,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9~12)

다같이 9~12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9~12)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재림이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9a)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의와 불법입니다. 의(義)와 불법(不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신6:5)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겔18:9)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롬2:13)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롬5:1)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롬18:6)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7:21~23)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의를 행하였느냐 불법을 행하였느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계20:12,13)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심판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결국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심판의 기준은 “자기 행위”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 의를 행했는가 아니면 불의와 불법을 행하였는가? 예수님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요12:48)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는가를 보십니다. 10~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10~12)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의 종말을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벧  
후3:7~12)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  
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자체가 되시  
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 셧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  
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를 얽매던 모든 죄의 세력에서 자유와 용서와 나음을 주십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또 장차 재림의 주로 임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실 통  
치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행한대로 심판하시  
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피해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  
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앞  
에서 두려워 떨림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불꽃 앞에서  
두려워 함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경건과 거룩, 의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행위를 낱낱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장차  
임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